



## 예비군 창설 제56주년 기념 축하메시지

예비군 창설 제5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250만 예비군 여러분,

그리고 정예 예비군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래 90여 회의 대침투작전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40여 차례 재해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소중한 밑거  
름이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급기야 민족 개념까지 부정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역 상비전력을 유지하기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안보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의 핵심과제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장비, 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높이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예비군훈련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보상비와 급식비를 인상하고,  
대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등  
예비군 권익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패이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 석 열